

HD현대1%나눔재단, 지역 취약계층 여름나기 물품 지원

영암·목포 300세대 대상 3,000만원 상당 가정 간편식 세트 제공
지역 경로당 58개소에 5,000만원 상당 가전·가구 등 후원물품 전달



HD현대상호서장수 총무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11일 영암군청을 찾아 우송회관에서 가정 간편식 세트를 전달하고 있다.

한편, HD현대1%나눔재단과 HD현대 상호는 여름나기와 겨울나기 물품 전달, 보호종료아동 지원, 복지시설 후원, 지역 어르신들에게 밑반찬을 쟁겨드리는 '행복한끼', 풍수해 복구 지원 등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목포와 영암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다.

영암/김희선 기자

HD현대1%나눔재단(이사장 권오갑)과 HD현대상호가 지역 취약계층이 무더운 여름철을 시원하게 날 수 있도록 다양한 후원 물품 지원에 나섰다. HD현대상호는 11일 서장수 총무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영암군과 목포시를 방문해 저소득층 각 150세대씩 총 300세대에 3,000만 원 상당의 가정 간편식 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차상위계층을 비롯해 중위소득 80% 이내 가구 중 각 지자체의 추천을 통해 선정했다. 이번 후원물품 전달은 HD현대1%나눔재단의 '해피서포터즈' 사업을 통해

지정기탁 방식으로 이뤄졌다. 재원은 HD현대1%나눔재단이 그룹사 임직원의 급여 1%를 모아 조성된 기금을 통해 마련했다. 또한 HD현대상호는 오는 14일에도 영암군 삼호읍 내 경로당 58개소를 대상으로 총 5,0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제습기, 소파, 테이블 등을 후원할 계획으로 감염병 예방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HD현대상호의 관계자는 "이번 후원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경제를 배워요”

광주시교육청, 남광주시장서 초등학교 '전통시장 체험 교육'

광주시교육청은 11일 남광주시장에서 광주학강초등학교 3학년 학생 68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통시장 체험 교육'을 진행했다. '전통시장 체험 교육'은 시교육청이 학생들의 합리적인 경제·금융 생활습관 형성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 6월 2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53개교 학생 2천5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학급 중심 참여 방식 뿐만 아니라, 학생 주도 모둠형 체험 방식을 추가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협업 능력을 키우는 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또 특수학급, 다문화학생, 경제교육 취약계층 등 다양한 학생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다. 이날 이점선 교육감과 광주학강초 학생들은 남광주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장보기 체험을 하며 생활 속 경제 활동을 체험했다. 남광주시장상인회는 학생들을 안내하는 등 안전한 체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광주학강초 3학년 정한비 학생은 "직접 물건을 사면서 물가를 체험하니 시장경제가 무엇인지 어렵잖이 알게 됐다"며 "전통 시장이 마트보다 친절하고, 물건을 고르는



재미가 큰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광주시장 순승기 상인회장은 "학생들이 단체로 찾아와 물건을 구매하니 시장 안에 활기가 도는 것 같다"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점선 교육감은 "이번 체험교육은 교과서 밖에서 배울 수 있는 실천적 교육의 장"이라며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경제·금융을 이해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염성호 기자

한빛원자력본부, 함평군에 냉방 용품 지원 2,000만 원 기부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에 한빛원자력본부에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지역 에너지 복지 실현에 힘을 보탤다. 함평군은 11일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김성면)가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관내 경로당 10곳에 냉방 용품을 지원하고자 2,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한빛원자력본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함평군과의 상생협력 관계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탁금은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에어컨 교체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군은 폭염 피

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경로당에 기부금을 전달할 방침이다. 김성면 한빛원자력본부장은 "지속되는 무더위로 어르신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여름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이번 지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준 한빛원자력본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은 어르신들이 시원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경로당에 신속하게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빛원자력본부는 함평군을 비롯한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상생을 위해 다양한 복지지원과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함평/전광훈 기자



농협 광주본부, 광주시에 쌀 100포대 기탁

하남·첨단산단 조식센터 등 '산단근로자 조식 지원사업'에 활용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가 산단 근로자들의 조식 지원을 위해 쌀 20kg 100포대(총 2t)를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고광안 행정부시장과 이현호 농협 광주총괄본부장이 참석해 상생 협력의 뜻을 나눴다. 농협 광주본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농업을 응원하고 쌀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건강한 식습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품질 쌀을 광주시에 기부했다. 광주시는 기탁받은 쌀을 '산단근로자

조식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아침을 거르지 않고 저렴하고 건강한 식사를 챙길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번 기부는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과 식생활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단근로자 조식 지원사업'은 광주시가 지난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사업으로, 김밥·샌드위치·샐러드 등 간편식을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에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하남산단과 첨단산단에 위치한 조식지원센터 2곳에서 운영되며, 하루 평균 200여 식이 판매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승원 기자



고흥군 두원면, 사랑의 옥수수 수확·나눔 행사 전개

5년 연속 민관이 함께 사랑의 옥수수 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

고흥군 두원면(면장 송정근)과 특새작물연구회(회장 송재철)는 사랑의 옥수수 수확 및 나눔 실천으로 함께하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자 민관이 함께 지난 4월 두원면 용산리 112-2번지 일원 약 1,279㎡의 부지에 옥수수 모종을 식재하고, 그동안 거름 살포와 잡초 제거 등 정성껏 가꾸 온 만큼 더 의미가 크다. 지난 7월 9일 수확 작업에는 새벽부터 회원 및 면 직원들이 참여해 구슬땀을 흘리며 옥수수 5,000개를 수확했다. 수확한 옥수수는 선별 작업을 거쳐 7월 9일부터 10일까지 관내 거점경로당 3개소에 취약

계층에 전달됐다. 송재철 회장은 "연일 찌는듯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귀한 시간 내주시는 회원 및 면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웃사랑 실천과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송정근 두원면장은 "5년째 이어지는 봉사활동에 숭선수범해주시는 특새작물회의 나눔 정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강화해 따뜻하고 활력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한수위의 에너지 한수원이 만드는 중!

미래형 소형원자로(SMR) 개발
세계 곳곳에 원자력 수출
클린에너지 원자력 수소
대한민국 에너지를 한 수 UP!

